

2010 체험특별전 해설지

학부모용



iiiii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5 TEL (032)440-6750 <http://museum.incheon.go.kr>



체험과 놀이를 통해 배우는 우리 고장 인천 인천아~놀자!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는 체험특별전〈인천아~놀자!〉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체험특별전은 진열장에 유물을 나열하는 전시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우리 고장 인천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인천을 바다의 도시, 국방의 도시, 근대의 중심지로 나누어 이와 관련된 주제를 체험교구와 모형을 통해 놀이하듯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시 속 작은 전시로 인천에 연고를 둔 다양한 장르의 인천 미술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여 관람객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학년별 수준에 맞춘 체험활동지의 미션을 해결하면 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전시관람을 위한 가이드

첫째,

전시실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음식을 섭취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세요.

둘째,

놀이하듯이 교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천에 대한 학습보다는 '체험'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전시물을 아는 것보다는 작은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천아~놀자!〉는 엄숙하고 딱딱한 전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교구들을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넷째,

전시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린이와 함께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섯째,

여러 관람객과 함께 관람할 경우 타인을 배려하며 질서를 지켜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른들의 작은 행동이 아이들의 전시관람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전시관람 모습을 사진에 담아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귀가 후 활동지나 리플렛을 다시 꺼내 보면서 전시관람 후 느낀 점을 상기시켜 주세요.

강화 멍텅구리배

서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낮은 물에서도 배가 쓰러지지 않도록 배의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천의 배도 바닥이 평평한데, 그 중 강화도에는 멍텅구리배가 있습니다. 멍텅구리배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 멍텅구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멍텅구리배는 바다에서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에 세워놓고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TIP...

배의 이름이 왜 멍텅구리배인지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배의 바닥이 왜 평평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천의 간척사업

인천은 예로부터 간척과 매립을 통해 땅을 넓혀 왔습니다. 독을 쌓아 바다를 막고 물을 뺀 뒤 그곳을 땅으로 활용했습니다. 인천 연안에는 갯벌, 섬, 만 등의 해안 지형이 발달하여 간척, 매립으로 부족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안선은 직선화되고 육지가 바다로 확장되는 등 인천 해안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TIP...

우선 100년 전 인천의 지도에서 현재 인천 위성지도로 변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인천 땅이 얼마나 많이 넓어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인천의 남부 지역을 확대한 체험교구를 통해 인천땅이 넓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비치된 독으로 넓힐 부분을 우선 막고 독 형태에 맞는 땅을 채워가며 인천땅을 넓히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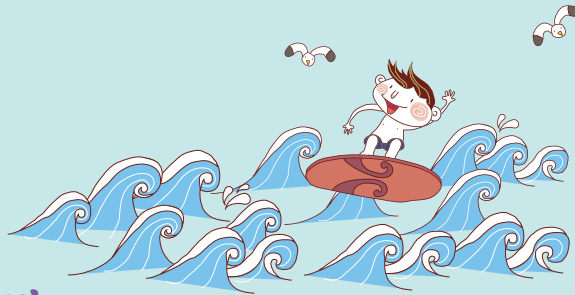
그물 끌어올리기

인천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 예로부터 연근해 어업을 통해 풍부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넓은 갯벌에서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먹는 꽃게, 새우, 병어, 뱀장어, 쭈꾸미, 망둥어 등은 인천 인근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입니다.



TIP...

아이들이 배에 올라 마치 어부가 된 것처럼 그물을 끌어 당기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물에 걸린 해산물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평소에 즐겨먹는 해산물이 인천 근처에도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또한 이곳은 포토존입니다. 아이들이 그물을 끌어 당기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가면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인천 바다의 소리

인천에서 들을 수 있는 바다의 소리들로 만든 소리 터널입니다. 터널을 지나면 동작센서에 의해 작동되는 뱃고동 소리,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TIP...

바다 소리 터널은 동작 감지 센서에 의해 작동됩니다. 뱃고동, 파도, 갈매기 소리를 각각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한명씩 차례를 지켜 천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한꺼번에 여러 명이 함께 통과하거나 너무 빨리 통과할 경우 소리가 섞여 잘 들을 수 없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면서 마치 바다에서 소리를 듣는 듯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인천대교

영종도와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인천대교는 중앙의 높은 주탑에서 비스듬히 친 줄로 다리를 지탱하는 사장교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주탑 사이의 도로는 이것을 받치는 기둥이 없어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었으며, 주탑 사이의 거리가 800m나 되기 때문에 큰 배들도 다리 아래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TIP...

모형을 조립하기 전에 주탑에서 비스듬히 친 줄이 다리를 지탱하는 사장교 구조상의 특징을 설명해 주시고, 인천대교를 왜 사장교 방식으로 지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장교 : 인천대교



현수교 : 부산 광안대교

강화도의 말목장과 말갯춤

말은 고대부터 군사, 교통, 운반, 교역 등에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말을 키우고 관리하는 마정(馬政)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강화도는 고려 말부터 목장이 설치되는 등 제주도와 더불어 중요한 마장지(馬場地)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수도인 한양과 가까워 말의 운송과 관리가 편하고 기후와 지형 또한 말의 이탈방지과 방목에 유리하여 중요시 되었습니다. 말을 탈 때는 여러 가지 말갯춤을 달았습니다. 말갯춤은 말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람도 안전하게 말을 탈 수 있도록 해주며 말을 위엄있게 보이게도 합니다.

대표적인 말갯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고 빼 : 말을 조종하기 위해 재갈이나 굴레에 잡아매는 줄
- 안 장 : 말의 등에 얹어서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만든 것
- 다 래 : 말이 달릴 때 튀는 흙을 막아내기 위해 배 양쪽에 매단 것
- 발걸이 : 안장에 매달아 말의 양쪽 옆구리에 늘어뜨린 것으로, 말에 오를 때 사용하거나 말을 탔을 때 두 발을 올려놓는 것
- 꾸미개 : 말띠, 안장, 말머리 등을 장식하는 것



TIP...

터치스크린으로 말갯춤을 꾸미기 전에 우선 말이 인간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강화도가 왜 예로부터 말목장으로 중요시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천의 봉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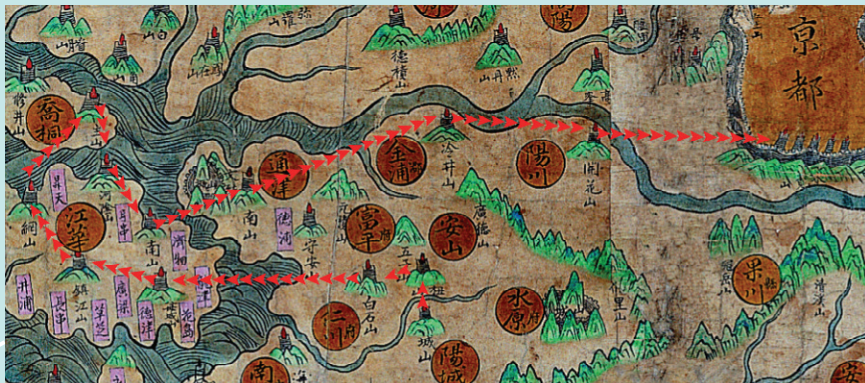
봉수는 적이 해안이나 국경을 침입했을 때 연기(낮) 또는 불(밤)을 피워 서울로 알리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봉수에 피우는 연기나 불의 수를 정하여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경의 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1개: 평상시
- 2개: 적이 출현했을 때
- 3개: 국경 가까이 왔을 때
- 4개: 국경을 침범했을 때
- 5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천에서 서울사이에는 여러 봉수들이 있습니다. 17세기 후반 봉수지도에 의하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인천의 성산(문학산)에서 서울의 목멱산(남산)까지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위급상황을 알렸습니다.

성산(인천, 문학산) → 축산(부평, 축곡산) → 백석산(김포) → 수안산(통진) → 대모성산(강화) → 진강산(강화) → 망산(강화) → 주산(고동, 화개산) → 하음산(강화) → 남산(강화) → 남산(통진) → 냉정산(김포) → 개화산(양주) → 목멱산(서울, 남산)



〈인천에서 서울까지 봉수 경로〉



우선 봉수의 역할과 봉수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각각의 미션이 제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봉수를 활용하여 서울에 알릴지 생각해 본 후 봉수 모형에 불꽃이나 연기 모형을 꽂아 서울까지 이르는 과정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강화성 쌓기

홍예의 구조

대부분의 성문은 무지개 모양을 하고 있어서 홍예문이라고 부릅니다. 홍예(虹霓)는 무지개의 한자어입니다. 성문은 돌들을 무지개 모양으로 쌓아 돌돌이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성-강화전성

강화전성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돌로 성을 쌓은 곳입니다. 전돌은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을 말합니다. 강화전성은 납작한 전돌을 엇갈리게 쌓아 올려 단단한 성벽을 만들어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홍예를 쌓을 때 투명 아크릴로 홍예를 받친 상태에서 안정감 있게 쌓아 완성한 후 천천히 아크릴을 빼면 따로 힘을 지탱하는 부분이 없어도 홍예가 무너지지 않고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려주세요. 강화전성을 쌓을 때 왜 납작한 전돌을 사용했는지, 왜 엇갈리게 쌓아 올렸는지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수자기 식물 짜기

수(帥)자기는 조선시대 군영의 장수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이 수자기는 신미양요 당시 광성보 전투에서 승리한 미군이 전리품으로 가져가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138년 동안 보관하던 중, 2007년 장기대여 형식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광성보전투는 1871년 6월 11일 미군과 조선군사이에 있었던 치열한 전투로 이 전투에서 조선군을 지휘하던 어재연 장군 수하 350여명의 조선병사가 장렬하게 전사하였고, 미군은 광성보에 게양되어 있던 수자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게양하였습니다.



직조에 있어 세로줄 실을 날실이라 하고 가로줄 실을 씨실이라 합니다. 직물조직에는 평직(날실과 씨실을 1울씩 번갈아 교차시켜 짠 것), 능직(날실 2~3울에 씨실1울을 교차시켜 짠 것), 수자직(날실 4울 이상에 씨실 1울을 교차시켜 짠 것)이 있습니다.



씨실과 날실을 하나씩 교차해서 직물을 짜는 평직을 이용해 수자기를 짤 수 있게 지도해 주시고, 어재연장군 수자기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카메라 옵스큐라

카메라 옵스큐라는 '어두운 방'이라는 뜻으로,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어두운 방 벽면이나 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으면 반대쪽 흰벽에 밝은 외부의 모습이 거꾸로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는 빛이 굴절하지 않고 직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출신 인물화가인 이당 김은호도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 실제 인물과 닮은 사실적인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어두운 암실에 들어가 차분하게 약 1분간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 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암실의 구멍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흰 벽면을 보고 있으면 구멍 반대편 벽면에 명실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전보치기

전보는 전기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원하는 내용을 문자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신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천과 서울 사이에 처음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전보는 모스부호를 이용하여 보내게 되는데 길고 짧은 신호음의 조합으로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인천감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고종 임금의 사형집행 전날 전보를 쳐서 사형 집행을 미루도록 했다고 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 각각에 해당하는 모스부호는 <표>와 같습니다. -는 길게 •는 짧게 누르면 됩니다.

문자	부호	문자	부호
ㄱ	· - · ·	ㅎ	· - - -
ㄴ	· · - ·	ㅈ	·
ㄷ	- · · ·	ㅊ	· ·
ㄹ	· · · -	ㅋ	-
ㄴ	- -	ㆁ	· · ·
ㅂ	· - -	ㄷ	· -
ㅅ	- - ·	ㅌ	- ·
ㅇ	- · -	ㅍ	· · · ·
ㅈ	· - - -	ㅑ	· - ·
ㅊ	- · - ·	ㅓ	- · ·
ㅋ	- · · -	ㅕ	· · -
ㅌ	- - · ·	ㅗ, ㅛ	- - · -
ㅍ	- - -	ㅜ, ㅠ	- · - -

<모스부호표>



모스 부호로 한글을 조합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길고 짧은 신호음만으로 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모스부호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세요.

자장면과 쫄면

우리들이 자주 먹는 자장면과 쫄면은 인천이 원조입니다. 자장면은 일제강점기 개항장의 배고픈 노동자들이 간단히 한끼를 해결했던 음식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쫄면은 공장에서 실수로 굵게 뽑은 면을 비빔국수처럼 고추장에 비벼먹은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쫄면의 면발은 자장면의 면발보다 짙습니다. 자장면과 쫄면의 면발을 고무줄로 재현한 교구를 통과 하면서 두 면발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압인기 체험

인천에는 화폐를 만드는 전환국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전환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통된 근대식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전통화폐와 근대화폐는 제작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상평통보와 같은 전통화폐는 일반적으로 엽전(葉錢)이라 부릅니다. 주화를 새겨 넣은 형틀이 서로 연결되도록 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화폐가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쇳물이 들어간 길은 마치 나뭇가지와 같고 만들어진 주화는 나뭇잎(葉)처럼 보인다고 해서 엽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개항 후 주화를 만드는 방식은 압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화의 도안을 금속에 새겨 압인기에 정착을 하고 압인기를 돌려 강한 압력으로 동전을 찍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압인식으로 주화를 만들던 관청이 전환국이었습니다.



압인기 체험 전 전통화폐와 근대화폐 제작 방식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압인기의 손잡이를 돌리는 것은 많은 힘을 요하므로 어린 아이들이 할 때는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세요.

인천이 최초

서울과 가까운 항구도시인 인천은 개항과 함께 많은 서양의 근대문물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전달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최초의 도크식 항구, 인천축항

개항기의 인천항은 서울로 연결되는 관문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큰 배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중갑문을 설치한 도크를 만들어 배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최초의 전보 그리고 인천우체국

개항 전후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많은 근대문물 중에서 특히 통신부분은 인천과 관계가 깊습니다.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개항지였기 때문에 전신, 우편, 전화 등 근대적 제도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실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보는 1885년 개통된 인천과 서울 간의 전보이며, 1923년에 지어진 인천우체국은 아직도 우체국 건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최초의 등대, 팔미도 등대

팔미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습니다. 팔미도 등대는 인천항을 오가는 배들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시 이 등대를 탈환해 불을 밝힘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인천이 최초, 자장면과 쫄면

우리들이 자주 먹는 맛있는 자장면과 쫄면은 인천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져 현재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 근대 스포츠의 최초, 야구와 축구

야구와 축구 등 많은 근대 스포츠들이 인천에서 처음 시작 되었습니다. 현재 제물포 고등학교가 있는 옛 윗터골 운동장은 인천공설운동장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윗터골은 넓은 분지가 펼쳐져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체육공간이었고, 많은 인천 시민들이 이곳에서 야구와 축구를 즐겼습니다.



이 영상은 인천이 최초인 것들에 관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각각의 영상은 약 6분간 상영됩니다. 5편을 모두 보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아이들이 끝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미술가들이 표현한 인천

우예슬 작가는 전시실 벽면에 검은 시트지를 이용해 가상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인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미도와 송도 유원지의 놀이동산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놀이공간이었던 그 곳들은 점차 상업적이고 퇴폐적인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되찾아주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만의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바람에서 전시실 벽면을 작은 놀이공간으로 변화시켜 사진에 담을 수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배이슬 작가는 우리가 신체검사를 할 때 꼭 거쳐가는 과정인 색맹 검사에 사용되는 점묘화로 바다를 접한 인천의 해수욕장을 연상시키는 비키니 수영복을 표현했습니다. 하나 하나의 색점이 모여 형태를 이루는 점묘화를 통해 구별하기 어려운 색채들의 구별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오은미 작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무관심하며 자신을 위장하고 살아가는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도성장과 급격한 도시화를 이룬 인천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또한 유화를 그리는 캔버스 천을 이용하여 사람과 같은 입체적 형상을 만든 후 그 위에 페인팅하는 작업을 통해 평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캔버스 자체를 입체화 하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조대희 작가는 블록쌓기 게임인 테트리스를 모티브로 하여 도시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을 형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도 'SIMCITY2010'으로 붙였습니다('SIMCITY' -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 그리고 송도 신도시 야경을 삭막한 도시의 모습이 아닌 형형색색의 환상적인 도시 이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푸근한 도시의 이미지를 작품에 담아 아이들에게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김순임 작가는 하늘을 상징하는 듯한 천장, 구름을 연상시키는 가볍게 부유하듯 떠있는 울, 그리고 인천의 땅에서 주운 돌들을 무명실로 직접 꿰매 공간을 바느질 하듯 연결한 작업을 보여줍니다. 인천의 돌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이 밟고 서있는 인천이라는 땅, 그 곳에 놓여있던 돌들이 떠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치된 작품은 편안하게 누워 쉬고 싶은 공간이 되며, 그 위에 누우면 관람객 자신도 가벼워 질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이들이 전시된 현대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창의적인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전시된 작품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작품입니다. 아이들이 작품을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